

3. 갑, 을은 현대 도덕교육 이론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p>도덕은 행위를 미리 정한 규칙의 체계로서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국가는 학생들이 도덕 규칙을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태도를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곧 학교는 학생들이 도덕규칙의 (㉠)을/를 존경하며 그것의 명령을 따르려는 마음가짐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규율과 금지의 대변자, 본보기로서 도덕적 (㉠)을/를 가져야 하고, 도덕규칙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 ㉡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p>
을	<p>아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구성해 가는 능동적 존재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동화, 조절, 평형 등의 과정을 통해 경험을 재구조화하고 도덕규칙을 스스로 구성해 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학교는 아동이 협력적 성향을 계발할 수 있는 도덕경험을 제공해야 하고, 특히 도덕교사는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며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을/를 점차 극복해 간다.</p>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갑의 입장에서 밑줄 친 ㉡의 본래적 역할을 서술할 것.
- 괄호 안 ㉠의 도덕교육적 한계를 을의 도덕성 발달의 관점에서 1가지를 서술할 것.

4. 다음은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포함한다. 첫째, 모든 개인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와/과 여론은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편적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 양식과 자신의 행복이 밀접한 관계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 공리는 도덕적 의무를 판가름할 궁극적 원리, 즉 1차 원리이다. 무엇을 도덕의 궁극적 원리로 채택하든, 그것에 입각해 하위 규범 혹은 2차 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2차 원리가 없다면, 특수한 상황에서 아무런 주장도 펼칠 수 없다. 그런데 ㉢ 2차 원리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상이한 종류의 쾌락들의 질적 우열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지 않는다. 쾌락들의 질적 우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교할 쾌락들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 이들의 생각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을 해결하는 방법을 서술할 것.
- 밑줄 친 ㉣을 해결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서술할 것.

5. 다음은 동양 윤리 사상가의 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선왕(先王)의 도(道)는 어짚(仁)을 숭상하는 것으로서 중(中)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무엇을 중이라고 하는가? (㉠)이/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도라는 것은 하늘의 도도 아니고, 땅의 도도 아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며, 군자가 가야 할 길이다.
- 무릇 도라는 것은 항구한 법칙을 본체로 하고 그 작용이 무궁하므로 일부만을 들어 도를 모두 보이기에는 부족하다. 한쪽만 아는 사람은 도의 한쪽만을 보기 때문에 도의 전체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도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꾸미게 된다. 이로 인해 안으로는 스스로를 어지럽히고 밖으로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 사람은 어떻게 도를 아는가? 마음으로 안다. 마음은 어떻게 도를 아는가? ... (중략) ... ㉡ 대청명(大淸明)의 경지에 도달하면 만물에 통하므로 일체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보면 설명 못 할 것이 없으며, 설명하면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밑줄 친 ㉡에 도달하기 위한 마음 수양 방법 3가지를 서술할 것.

6. 갑, 을은 동양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진[仁] 사람은 천하의 (㉠)을/를 도모하고, 천하의 (㉡)을/를 없애기 위해 애쓴다. 대국이 소국을 정복하고, 큰 집이 작은 집을 침범하는 것, 강자가 약자를 겁박하는 것, …(중략)… 이것이 천하의 (㉢)(이)다. 국가가 서로 정복하지 않고, 사람과 집안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하의 (㉣)(이)다. ○ 천하의 혼란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중략)… 자식은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망치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 신하는 자신만 사랑하고 군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군주를 망치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천하 ㉤ 혼란의 원인이다.
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계산적이다. 신하는 자신에게 (㉠)이/가 되고 나라에 (㉡)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군주는 나라에 (㉢)이/가 되고 신하에게 (㉣)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왕은 능력을 시험하여 신하들이 분발하게 하고, 법을 엄격히 하여 위엄을 세운다. 법을 분명히 하면 백성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유학자는 글로 법을 어지럽히고 무사는 무력으로 금령을 어기는데도 군주가 이들 모두를 예우하니, 이것이 혼란의 원인이다. 법을 어긴 유학자는 죄를 물어야 함에도 글과 학문에 따라 채용되고, 금령을 어긴 무사는 사형을 받아야 함에도 개인의 검술실력에 따라 고용된다. 이것이 사회적 ㉤ 혼란의 원인이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에 대한 갑의 처방을 ‘효(孝)’를 활용하여 서술할 것.
- 밑줄 친 ㉣에 대한 을의 처방을 ‘세(勢)’를 활용하여 서술할 것.

7. 갑, 을은 서양 현대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와 무관한 세계를 말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세계는 우리가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진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경험과 낡은 진리가 결합되어 수정된다. 세계에 대한 진리는 (㉠)한다. ○ 새 진리는 낡은 진리에 의존하면서도 새 사실을 밝혀 낼 수 있다. 새 관념은 진리의 계열 속에 끼어들어 형성된다. 어떤 것이 참되다고 하는 것은 낡은 것과 새것을 뺏어 준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려는 ㉡ 지향성이나 욕구를 갖고 있다. 이런 진리관에서는 진리를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 객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상황 속에서 상황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평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평형이 깨지기도 한다. 평형이 깨지면, 인간은 당혹감과 불안을 느끼고, 이를 (㉣)(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인간의 탐구는 (㉤)와/과 함께 시작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자동차를 의식하며, 고장의 원인을 생각하게 된다. 탐구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으며, 탐구의 결론은 관념이나 지식이다. 따라서 관념이나 지식은 ㉤ 문제 해결의 도구이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갑이 밑줄 친 ㉢을 주장하는 이유를 밑줄 친 ㉣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 밑줄 친 ㉤의 결과를 을의 진리관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

8. 갑은 현대 도덕 심리학자이고, 을은 현대 도덕교육 이론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p>공감은 다섯 가지 다양한 방식에 의해 발생한다. 공감은 우선 동작 모방과 구심적인 피드백, 고전적 조건화, 피해자 또는 그의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단서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 경험과의 직접적인 연상에 의해 발생한다. 아동기에 이러한 ㉠ 모방, 조건화, 직접적인 연상은 특히 얼굴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세 가지는 평생 동안 잠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공감의 토대가 된다. ㉡ 나머지 두 가지 공감 발생 양식은 (㉢)와/과 역할채택이다. 특히, 역할채택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피해자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상상한다.</p>
을	<p>배려를 할 때 배려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의식 상태가 필요하다. 하나는 전념인데, 이는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받는 사람에 대해 진심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데, 이는 배려하는 사람의 동기에너지가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배려가 이루어질 때, ㉤ 배려를 받는 사람도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는 진정한 만남이 형성되어 배려가 완성된다. 만일 어느 한쪽이라도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게 되면 서로의 감정이 합치되지 않아 진정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없다.</p>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공감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밑줄 친 ㉡과 구분되는 밑줄 친 ㉠의 특징 1가지를 서술할 것.
- 배려의 완성을 위해 밑줄 친 ㉤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할 것.

9. 갑, 을은 해외 원조를 주장하는 현대 사회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p>커다란 희생 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 의무는 해외 원조에도 적용된다. 이 해외 원조 의무는 모든 존재의 처지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 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 (중략) ... 내가 돕는 사람이 이웃의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사는 어린아이인지는 나에게 도덕적 맥락에서 차이가 없다.</p>
을	<p>자유주의 사회는 국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회'를 도울 의무를 갖는다. (㉧)은/는 한 자유주의 사회가 다른 나라에 대한 ㉨ 해외 원조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우호 관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은 모든 나라가 자유주의를 채택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지만 정치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은 절대주의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p>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에 대한 을의 입장을 중심으로, 원조하는 국가와 원조받는 국가의 조건을 순서대로 서술할 것.

10. 갑은 동양 윤리 사상가이고, 을은 한국 윤리 사상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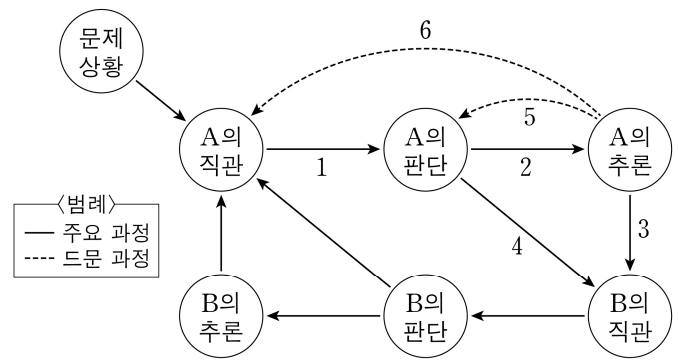
갑	<p>(㉠)은/는 본연의 오묘함이며, 동정(動靜)은 그것이다. (㉠)은/는 형이상의 도이고, 음양(陰陽)은 형이하의 기물[器]이다. 그러므로 그 드러난 것에서 보면 동정의 때가 다르고, 음양의 자리가 다르지만, (㉠)은/는 어디에나 있다. 그 드러나지 않은 것에서 보면 텅 비고 고요하여 아무 조짐도 볼 수 없지만 동정과 음양의 이치[理]가 이미 그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 이른바 (㉠) (이)라는 것은 음양 속에 있으며, 음양은 다만 이 속에 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음양에 앞서서 따로 형체나 그림자가 없는 이것이 있다고 하니, 이는 옳지 않다.</p>
을	<p>“오행(五行)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은 하나의 (㉡)이며, (㉡)은/는 본래 (㉢) (이)다. 오행이 생겨남에 각기 그 본성을 하나씩 갖추게 되니 (㉢)의 참됨[眞]과 음양오행의 정수[精]가 묘합하고 응결된다. 이에 하늘의 도[乾道]는 남성을 이루고 땅의 도[坤道]는 여성을 이룬다.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이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化生)하니,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 그 변화가 무궁하다.” ... (중략) ... 지금 여기에서 첫머리에 이 그림을 배치한 것은, 『근사록』에서 이 도설을 첫머리에 둔 뜻과 같다. 대개 성인(聖人)을 배우려는 자는 여기서 그 실마리를 구하여 『소학』과 『대학』 등의 학문에 힘써야 한다.</p>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에 대한 갑의 입장을 괄호 안의 ㉠과 관련하여 2가지를 서술할 것.

11. 다음은 현대 도덕 심리학자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도덕적 직관은 도덕적 추론과 구분되는 또 다른 인지 유형으로,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에 토대를 둔다. 6가지 도덕적 토대를 갖는 도덕적 직관은 도덕적 추론을 거치지 않고 도덕 판단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때 작동하는 도덕적 직관은 (㉣)을/를 포함하며, 일상의 수많은 도덕 판단들은 이러한 도덕적 직관을 통해 잘 설명된다. 또한, 도덕적 직관과 추론의 관계는 코끼리와 코끼리의 등에 탄 기수에 비유할 수 있다. 도덕적 추론에 해당하는 기수는 앞을 내다보며 코끼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목표한 바에 한발 다가가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수의 중요한 역할은 코끼리의 대변인 역할이다. 이러한 도덕적 직관과 추론, 도덕 판단 등의 과정과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4가지 주요 과정	1. 직관적 판단 링크	2. (㉣) 링크
2가지 드문 과정	3. 추론에 의한 설득 링크	4. 사회적 설득 링크
	5. 추론에 의한 판단 링크	6. 개인적 심사숙고 링크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A의 판단에 대한 괄호 안의 ㉤ 역할을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